

미국농무성의

돼지개체식별계획



김태호역
(본회 포천지부장)

장기간에 걸쳐 심사숙고해 온 미국의 돼지개체식별계획(ID-Identification)이 지난해 2월 3일 발표되었다. 수많은 요구중에서 의논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미국농무성이 인가한 개체식별표로는 각 주(州)간에 돼지의 매매와 이동은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의 예외규정은 일관경영에서 비육된 돼지가 직접 도축장에 출하될 때뿐이다. 이들 돼지는 다른 농장의 돼지와 혼동되어지는 일이 없고, 그

리고 이들 돼지는 즉시 도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인 요망사항은 4월 4일에 마감되었다. 전미국양돈생산자협회는(NPPC)는 수백개의 원안을 취합하여 주(州)양돈생산자단체와 보급소, 그리고 이것들에 흥미를 갖고 있는 개개의 양돈가들에게 배포하였다. 전미국양돈생산자협회의 돼지개체식별계획특별위원회는 일반적인 요망을 받아들인 기간중 이 계획서를 세밀히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식육처리장과 유통업자도 포함시켜 미농무성에 대하여 업계로서의 통일된 의견을 제출하도록 협의하였다.

전미국양돈생산자협회 과학교육 담당부장인 D. 미커박사는 준비단계로서 이 계획안이 양돈업계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잔류물질의 제어(制御)를 즉시 필요로 하고 있고, 도축장 단계만의 자료처리만이 아니고 지육의 품질에 관계되는 정보를 농장에 되돌려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첨가하였다. 그렇지만 질병에 있어서의 관리나 동식물건강검사국의 비육돈을 농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제한을 가하는 권력은 약해질 것이다. 또 이에 관한 금전적 문제,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도 업계의 원조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이 계획에 있어 업계 전체에 어떤 서류가 붙어나고, 그에

1984년 전 미국 양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돼지개체식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양돈농가, 정부의 상담역, 유통, 식육업계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돼지개체식별계획체계는 제품 이용의 강화와 소비자에 대해서는 신용을 증가시키고 돈육의 개량을 행한다. 특히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돼지 1두마다의 인식에 의해 질병, 화학물질 잔류 그리고 육조성, 품질관리를 가능케 한다.

수반하는 노동력이 증가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돈육에 관계되는 업계 전체가 받는 이익도 크다.

가동할 ID계획은 미국의 돈육을 세계에 유통시키는 데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고 믿고 있다.

많은 관계자는 전미국의 돼지개체식별계획의 실시안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수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돼지개체식별계획의 장단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돼지개체식별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984년 전미국양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돼지개체식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양돈농가, 정부의 상담역, 유통, 식육업계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위원회의 주요사업 취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돼지개체식별계획체계는 제품 이용의 강화와 소비자에 대해서는 신용을 증가시키고 돈육의 개량을 행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돼지 1두마다의 인식에 의해 질병, 화학물질 잔류 그리고 육조성, 품질관리를 가능케 한다.

전미국에 있어서의 ID계획을 원조하기 위해

미국양돈생산자협회의 다른 위원회가 재소집되었다. 1982년 돈육평가특별위원회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돈육의 조성이나 출하돈, 지육의 진가(眞價)에 있어서 정보의 흐름은 단지 인식과 그것을 역으로 비교해 보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고 이 위원회는 말하고 있다.

선모충에 대한 안정성특별위원회는 1982년에 설치되어 사람이 선모충증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돈육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성공시키자면 감염되어 있지 않은 육돈 혹은 지육의 출하선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고, 그리고 감염되어 있는 돈군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돼지개체식별계획이 유효하다.

질병근절대책계획은 오제스키병, 부루세라병 등의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질병 대책도 인식표를 사용하여 출하선을 찾아낼 수가 있다.

전미국양돈생산자협회의 품질보증위원회는 쉘파계 항생물질의 위반을 적게 하기 위해 생산농장에 있어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농장에 있어서 시험, 생산자에 대한 교육·계몽도 포함되어 있다. 약제 등의 사용에 의한 공중의 계속적인 인식을 위반자가 판명되고 바로 잡아지지 않는 한 생산자 전체의 이익이 감소되게 마련이

다.

1985년 전미국과학회는 연방식육검사에 대하여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ID계획이 식육검사를 행하는데 제일 이상에 가까운 한가지 방법이라고 하였다. 1986년에는 국회개회중 농무성에 대해 가축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질문하였다.

품질보증위원회에 있어서는 작년에 수많은 토론회와 의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농무성의 수의사에 의해 이 문제의 역사적 배경 설명을 받았다. 또 ID계획을 실시한다는 것에 의해서 돈육 제품에 대해 여러 회사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동시에 전자식 개체식별 장치의 상황과 돼지에 대한 응용 설명을 받았다.

초기의 회의에 토론이 많았던 것은 전미국ID계획의 가치를 토론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다. 이 토론에서 많은 장점과 단점이 판명되었다. 그중에서 몇가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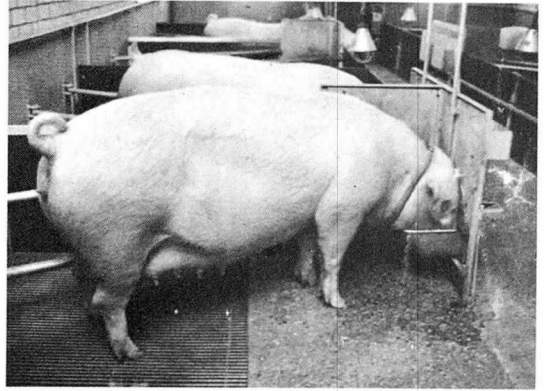
- **제품의 이미지와 개량의 가능성** : 이 방식은 지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등급 사정을 행하고 지육의 식별 혹은 개체식별에 의해 자극적인 계획으로 되었다.

- **질병관리 혹은 검사** : 종합적인 검사 혹은 혈액 검사에 의해 질병의 상황을 농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 **잔류물질의 관리 혹은 검사** : 잔류물질의 검사에 의해 농장에 되돌아가 적절한 처리 혹은 주의를 줄 수 있게 되었다.

- **신속한 문제해결** : 질병 혹은 약품 잔류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이 빨라질뿐만 아니라,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농장에 정보를 줄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 **질병 근절계획** : 질병의 근원을 찾아냄으로써 전염병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 전국적인 질병 근절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되었다.



- **저비용,저노동** : 이에 관계되는 비용은 최저로 할 것이며, 노동력도 중노동력이 소요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육종개량을 위한 지육의 정보** : 육돈 1두마다 개체식별이 가능하게 되므로 지육의 정확한 자료를 생산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다.

돼지개체식별계획의 채택

1986년의 전미국양돈생산자협회의 총회에서 전미국식육위원회가 도체의 자료(건강상태, 지육의 품질과 정보 포함)를 응용할 수 있도록 되었을때 생산자와 함께 이용한다는 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돼지개체식별계획을 채택하게 되었다. 생산자, 식육가공업자, 유통업자가 일체가 되어 이 ID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업계 전체를 보다 전진시켜 소비자가 실망할 같은 문제를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도축장, 식육처리장에서는 만약 생산자가 희망하면 지육의 정보를 돌려주어도 좋다고 되어 있다. 전미국양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결의가 된후 농무성식품안전검사국은 농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육돈의 개체식별 필요성을 전미국식육위원회에 의해 청원된 것을 발표하였다. **■**